

광주일보 김진수 기자 '박경완 기자상'

광주일보 김진수 기자가 19일 '박경완 기자상'을 수상했다. 김 기자는 작품 '태극기 휘날리며'를 출품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기자는 지난 해 8월 광주 서구청 광장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소녀상 옆에 국화를 헌화하는 모습과 태극기를 절묘히 담아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경완 기자상은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래 올해로 15회째 수상자를 냈다.

한편,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최기남)는 2020년 광주·전남보도사진전을 19일부터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신보, 무등시장 상인회 방문 자금지원 논의



광주신보보존재단(이사장 변정섭·왼쪽 세번째) 코로나19 대책반은 19일 무등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신보 제공>

광주시체육회, 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 급식 봉사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접촉 임시 격리시설인 광주시공무원교육원 내 소방학교 생활관을 방문해 환자 및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등 급식 봉사를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현황자 급급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덜어주기 위해 단체인원도 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조선대, 지난해 2학기 우수 교육활동 교원 시상식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지난 18일 '2019학년도 2학기 우수 교육활동 교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교육활동을 펼친 교원들을 시상함으로써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선대 제공>

인사

◆군산대

▲교무처장 최강득 ▲학생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 정승우 ▲대학원장 이신영 ▲도서관장 강영홍 ▲정보전산원장 신성운 ▲황룡인재교육원장 김용이 ▲학생생활관장 박영태 ▲교무부처장 황보규 ▲학생부처장 이인아 ▲박물관장 김중수 ▲인문사주간 이호 ▲인원센터장 노기호

“영공 지키는 여성 전투기 조종사 기대하세요”

올해 광주 유일 공군사관학교 여성 생도 입학 김아현

女 20명 정원 바늘구멍 뚫어... 지난달 기초군사훈련 통과 항공사 근무 어머니 영향 비행기 친근... 아버지 응원 큰 힘

“F-35A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고 싶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제72기 사관생도로 입학한 김아현 생도는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아현 생도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제72기 입학식에서 남성 180명, 여성 20명의 생도들 중 광주지역 유일 한 여성 생도로서 이름을 올렸다. 김 생도는 지난 1월부터 4주간 기초군사훈련에서 남성 생도들과 똑같은 훈련을 이겨내며 진정한 사관생도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김 생도는 항공사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영향 아래 비행기를 자주 접하며 직접 비행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동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때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결심한 김 생도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다.

상위권인 학교 성적이 잘 맞추며 그동안 공사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부

했고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

성적으로 뽑는 1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후 치러지는 면접과 신체검사, 체력 검사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되기에 시간 날 때마다 체력 단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 생도는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도 중요하지만 오래 달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향상되지 않기에 무척 힘들었어요. 이들 중 한가지라도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라 말하며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끔 힘들고 지칠 때면 김 생도의 아버지가 의지를 다잡아줬다.

육군 헌병 출신인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은 최고의 영광”이라며 힘이 되는 조언을 해주며 김 생도와 함께 음악을 듣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며 지친 마음을 달래줬다.

이러한 부모의 응원 속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예비 생도로서의 자격을 갖췄지만 난관은 계속됐다.

1월부터 4주간 진행되는 기초군사훈련 중에도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기 싫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김 생도는 “사격과 화생방 훈련도 힘들었지만 산책대기까지 완전 군장으로 행군하는 게 가장 힘들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 또한 이겨내야 진정한 생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했어요”라고 말했다.

예비 생도로서의 험난한 과정을 마친 후 열린 입학식에서 김 생도는 짙은 감색 제복을 입고 나타났다.

입학 축하를 의미하는 꽃 목걸이를 목에 건 김 생도는 아직은 옛되지만 예비 군인으로서 다부진 표정이 역력했다.

“이제 1학년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야. 군가 외우는 것도 꽤나 어렵다”며 웃으며 말한 김 생도는 “차근차근 배워 나가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주 비행사도 되고 싶고 학생들을 양성하는 교수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가장 1순위는 F-35A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며 “평소 아버지가 하시던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말씀처럼 앞으로 내 능력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국 아픔 글로 위로한 호남 서예가들

고전 문구로 응원 휘호 제작 광주 중국총영사관에 전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호남지역 서예가들이 휘호를 제작, 중국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국제 서법연구회 호남지회(회장 박신근)와 광주차이나센터(센터장 조경완 호남대 교수)는 19일 광주차이나센터 다목적실에서 중국국민 응원휘호제작 전달식을 열고 호남지역 서예가 9명이 현장에서 쓴 서예작품을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에 전달했다.

서예가들은 “송무백열(松茂柏悅·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풍우동주(風雨同舟·폭풍우 속 한배를 타다),

‘일방유난천방조’(一方有難千方助·한 곳이 어려움에 처하자 천 곳에서 도움을 주다) 등 고전에 등장하는 격려의 문구들을 서예로 표현했다.

서예 작품을 전달받은 쑤시엔위 주광주 중국총영사는 “중국은 광주의 우정을 잊지 않겠다”며 “중국은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며 중한우호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작품들은 베이징, 우한, 광저우 등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있는 중국주요도시인민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글·사진·최현배 기자 choi@



오명섭(오른쪽) 서예가가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차이나센터에서 쑤시엔위 주광주 중국총영사에게 휘호를 전하고 있다. 오 서예가가 쓴 휘호는 송무백열(松茂柏悅)로 벗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행안부·전남도·경북도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지원 협약



행정안전부·전남도·경북도가 영·호남 지역 특화형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이들 기관은 19일 순천시 낙안면과 경북 의성군 안계면이 행정안전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이를 지원·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사진> 이날 행안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종인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이재관 지방자

치권보실장, 전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 경북도·순천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한 주민 자치형 사업으로 전남(순천시 낙안면)과 경북(의성군 안계면)이 전국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d@

이영창 바른안과 원장, 초록어린이재단에 1억원 기부 약정



수원지구 바른안과 이영창 원장(왼쪽)이 1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에 5년간 1억원의 후원을 약속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회원이 됐다.

그린노블클럽은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후원자 또는 단체다.

후원금은 오는 2024년까지 ‘1979 이은영 바른꿈 장학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용된다.

매해 3월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중학생 중 학습, 문화, 체육, 예술분야에 잠재 능력이 있는 10명을 선정해 1명당 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4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

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자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

행. 062-223-1357.

▲시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화산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산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 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화현황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직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기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

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강영애씨 별세, 김일권(전남대 예술대학 교수)·김지현씨 모친상=발인 20일(목) 오전 9시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061-759-9181.